뱀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 한다

내년 6월부터 … 17년만에 유통 시장 '혁명'

투명한 가격·소비자 안전한 먹거리 기대

투명한 가격 정보가 없어 질서가 무너진 뱀장어 유통시장이 '혁명'을 맞는다.

위판장 밖에서는 거래할 수 없도록 상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따라 17년 만의 유통체계 재편이 예고됐다. 그동안 가격 교란으로 고통받던 생산자들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4일 지역 정가와 민물장어 양식 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성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공포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을 대표로 여야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애초 발의안은 '뱀장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했지만, 수산 관계 법령에서 특정 수산자원의 명칭을 규정하는 입법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뱀장어'가 삭제됐다.

그러나 뱀장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

개정안은 신설된 위판장 거래 규정을 어겼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

이에 따라 뱀장어는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제도가 폐지된 뒤 17년 만에 의무 상장제에 따라 유통된다. 그동안 뱀장어 등 내수면 양식어류는 대부분 장외거래돼 시장은 소수 중간상인에 의해 사실상 휘둘려왔다.

양식어민은 소비 추세에 따라 널뛰듯 오르내리는 산지가격에 불안해하면서 중간상인의 거래 독·과점에 대응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출하하는 현상도 빚어졌다.

위판 의무화는 투명한 유통 흐름으로 가격 결정 구조와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생산자단체가 안전성 검사에서 합격한 민물장어만 출하해 소비처인 식당에 공급하고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면서 소비자들은 알 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국내에 3만t가량의 중국산이 수입됐지만, 식당에서 중국산으로 표기돼 팔리는 물량은 단 1마리도 없다는 게 민물장어 양식업계의 정설이다.

다만 뱀장어 위판시설 마련 등 시행 전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해수부는 해수부령 입법예고 예정인 내년 2월 중 법률 개정으로 예상되는 문제의 대책과 구체적 위판장 운영계획을 마련하려고 민물장어 수협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자단체는 "생산자는 손해를 보고, 소비자는 비싸서 사 먹지 못하는 모순된 유통구조를 개선할 기회"라며 크게 반겼다. /연합뉴스

농협광주본부, 어르신 22명 백내장 수술 지원

수술비는 농협직원 회비 출연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항공권 지원도

평생 땀 흘려 농사를 짓다 자신이 눈이 침침해진 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광주지역 농부들이 농협의 도움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됐다.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흥묵)와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광주본부(박삼지 노조위원장)는 최근 광산구 임곡농협(조합장 기재만) 회의실에서 평소 눈이 불편하신 임곡 관내 노인 40여명을 대상으로 안과전문의사를 초청해 무료 안과 검진을 했다.

평소 눈 앞이 침침해도 바쁜 농사일 탓에 병원에 가기 힘들었던 농부들의 눈을 첨단의료 장비로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훨씬 눈 건강이 좋지 못했다.

이날 검진대상자 중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22명에 달했다. 밝은광주안과(원장 고한진)의 도움을 받기로 우리농업지키기운동광주본부와 협약이 돼 있어 부담은 대폭 줄었지만 당장 마련해야 할 수술비만 1000만원에 달했다.

수술비는 전액 우리농업지키기운동광주본부에서 활동하는 농협 직원 330여명이 회비를 걷어 마련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삼지 노조위원장은 "농사일을 천직으로 삼고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힘들게 살아오신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밝은 눈으로 생활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 노인은 12월 한 달 동안 밝은광주안과에서 개안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수술비는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측에서 전액 지원한다.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는 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회비를 출연하여 노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농업·농촌을 지키고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농협광주본부는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항공권 지원, 범농협 임직원 농촌일손돕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농촌지역 이·미용봉사활동, 사랑의 천사(1004)운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AI 나주 방역 현장 방문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지난 2일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발생한 나주지역 차단방역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

이날 김병원 회장은 나주시 왕곡면에 위치한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를 방문하여 주요 방역상황과 전남농협의 방역대책 등을 점검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고병원성 AI는 빠른 전염성과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이므로 AI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농협은 해남·무안지역에 AI가 발생하고 나주지역 에서 AI 의심축이 발생해 해당지역과 철새도래지역에 생석회 72t과 소독약 400ℓ를 긴급 공급했으며, 공동방제단 방역차량을 동원해 발생농가

주변 및 주요도로와 철새도래지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1일까지 무안 남악점서 알뜰 직거래장터 열려

농협전남지역본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최근 무안군 삼향읍 농협하나로마트 남악점에서 알뜰 직거래장터를 개장해 이달 1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기간에는 배추·다발무를 비롯해 마늘·고춧가루·생강·당근·소금·젓갈류 등 김장재료 20여 품목을 시중가보다 10~3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또한 직장인들과 바쁜 가정을 위해 절임배추도 예약판매 한다.

강남경 본부장은 "김장재료 가격상승으로 김장 담그기가 만만치 않지만 직거래장터를 이용하면 김장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장 성수기를 맞아 주재료인 배추는 공급 물량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출하량이 늘어 지난주 대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재료인 쪽파와 생강은 성출하기를 맞아 공급물량 증가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탄핵 정국' 불확실성 확대

ECB회의·이탈리아 투표 주목

반도체 업종 강세 이어질 듯

코스피지수는 좁은 박스권 속에서 한주간 횡보세를 보였지만 코스닥지수는 지난주말 1.2%하락하며 주간기준 11포인트(1.85%)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며 제약/바이오업종의 매수부진 속에 중국정부의 샤드 강경대응으로 피해종목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여행제한, 한류스타들의 광고 및 드라마 출연제한으로 시작되어 중국홈쇼핑과 전자상거래부문으로 확산되었고 지난주 샤드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 필자가 코스닥시장에 대해 매도보다는 미국 기준금리인상이 예상되는 12월 중순 이전에 저점 매수시점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이것을 중소형주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투자자가 있는데 필자는 대형주 중심의 시장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주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하락했지만 코스피지수 시가총액의 18.7%를 차지하고 국내 절대적 1위기업인 삼성전자는 장중 175만원을 돌파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국내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난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9563억원을 순매수 했는데 이중 삼성전자가 5300억원 이상을 차지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1196억원을 순매도 했다. 특히 11월 30일 MSCI지수 반기편입에 맞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몰리면서 상승폭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러브콜에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슈와 스마트폰 수요증가에 따른 D램공급부족상황이 이어지면서 갤럭시노트7 발화사건과 단종에 따른 손실을 반영해도 3분기 영업이익이 5조 2000억을 기록하고 2016년 영업이익을 28조를 예상한 실적호전이라 할 수 있다. 당사에서는 2017년에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연간영업이익을 33조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주가가 2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업종의 강세는 대형주중심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에는 원자재가격 상승기대로 화학 철강 등 소재업종과 수익구조가 다변화되면서 이익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는 은행업종도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번주 관심을 가질 이슈로는 이탈리아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가능성과 이탈리아 부실은행의 자본확충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4일(일요일) 이탈리아국민투표의 결과와 결과에 따른 글로벌시장의 반응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ECB 드라기 총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자산매입프로그램의 연장여부와 이탈리아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책이 논의되는 8일 ECB회의의 결과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주초반 이탈리아 국민투표와 국내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8일(목)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맞이한다. 외국인은 지난주 코스피200선물을 일부 환매수 했지만 9월 선물만기일 이후 여전히 대규모 매도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어 선물만기 이전에는 코스피지수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기일 이후에는 연말 배당투자 목적으로 인덱스펀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매수 유입이 기대되어 만기일 이후에는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지수흐름을 기대해 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4.7% ~ 4.9%
대출기간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